

## KBS 제26대 사장으로 박민 후보 임명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KBS 이사회(이사장 서기석)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KBS 사장 후보로 선정해 임명 제청했다.

KBS 이사회는 10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거쳐 박민 사장 후보 임명 제청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의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이날 인사혁신처로 송부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앞서 10월 4일 이사회에서 진행된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건전한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KBS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수신료 분리징수, 2TV 재허가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빠른 시일 내 KBS의 방송과 경영을 철저히 혁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민 후보자는 이사회의 임명제청 후 “아직은 후보자 신분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되면, KBS 혁신 방안을 사내 구성원들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사장에 취임하면,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지 직을 맡게 된다.



박민(朴敏) 사장 후보자 약력

- 前 문화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
- 前 관훈클럽 총무
- 前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KBS, '2023 ABU 서울총회' 개최

### 세계 주요 방송사, 국제미디어기구 전문가들과 미래 지속가능성 논의

KBS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여의도 KBS 본사와 콘래드 서울에서 세계 주요 방송사 전문가와 유수의 국제미디어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2023 ABU 서울총회(ABU 2023 Seoul)를 개최한다.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는 KBS와 MBC, SBS, EBS 등 한국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해 일본 NHK, 중국 CMG, 인도 DD 등 65개국 250여 회원사가 참여하는 미디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매년 총회를 열어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ABU 서울총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네 번째 총회로 KBS는 1985년과 1997년, 2012년에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 ■ 다음이 온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

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총회의 주제는 ‘다음이 온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What Comes Next? Original Question for Sustainability)’이다. 이 주제 아래 2023 ABU 서울총회는 다가올 미래의 핵심 변화를 전망해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미디어 산업계가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지혜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11월 1일 총회 마지막 날 진행될 슈퍼패널세션(Super Panel Session)은 어느 해보다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세션1에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피 말리는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들을, 세션2에서는 전세계 미디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미디어기구의 리더들을 초청해 변화하는 세상과 미디어와의 접점을 찾기 위한 깊이 있고 현실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 ■ KBS의 노하우 공유, 뮤직뱅크와 KBS 사내 투어(Inside KBS 투어)

10월 27일과 28일에는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우선, 세계 방송사들의 K-Pop에 대한 높은 관심을 수용해 회원사 방송제작자와 국제기구 참석자 일부에 뮤직뱅크 제작 과정을 공개한다.

그리고 KBS 재난미디어센터, XR 제작 시설, UHD ATSC 3.0, AI를 활용한 버티고(vVertigo),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시설 등에서 KBS의 방송 제작 노하우를 회원사들과 공유하는 KBS 사내 투어(Inside KBS 투어)도 마련된다.

#### ■ KBS 성평등센터, ABU 여성포럼 ‘서울선언’ 주도

10월 29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평등과 다양성, 포용성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ABU 여성포럼을 통해, KBS가 ABU 회원사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KBS 성평등센터’의 성과를 공유한다.

KBS는 조직 내 성평등 실태 조사 등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직원은 물론 출연자까지 영역을 확장해가는 과정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회원사들과 여과 없이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서울 선언’에 담아 실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 ■ 마마무+(MAMAMOO+)와 함께하는 ABU TV 송 페스티벌

10월 29일 저녁 7시 30분에는 아시아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ABU TV 송 페스티벌이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대표로 마마무 멤버 솔라, 문별로 구성된 유닛 마마무+(MAMAMOO+)가 무대에 오르고 일본, 중국,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 각국을 대표하는 가수 11개 팀이 참가한다.

#### ■ 대중교통 이용 등 작지만 일상에서 ESG를 실천하는 2023 ABU 서울총회

KBS는 2023 ABU 서울총회를 역대 가장 컴팩트하고, ESG 친화적인 행사로 준비했다. 사전 화상회의를 통해 일정을 줄여 회원사들의 부담을 줄였고, KBS 사내 투어(Inside KBS 투어)를 통해 회원사들의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2023 ABU 서울총회는 방송인들 스스로가 작지만 일상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한 ABU 총회로 기억될 것이다.



신(神)인 디바 데뷔 프로젝트

# 골든걸스

GOLDEN GIRLS

〈골든걸스〉는 수많은 히트곡을 자랑하는 국내 최정상 여성 보컬리스트 인순이, 박미경, 신호범, 이은미가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의 프로듀싱을 거쳐 4인조 여성 그룹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담는다.

데뷔 45년 차의 가창력 끝판왕 가수로 그룹의 만년역 역할을 맡은 인순이, 시원한 가창력을 지닌 원조 댄싱 디바 박미경,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으로 불리는 신호범, 데뷔 32년 차의 베테랑 보컬이지만 그룹에서는 막내를 담당할 이은미까지. 4인의 개성 강한 디바들이 그룹 활동을 통해 어떤 케미를 선보이며 시너지를 발휘할지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맡은 박진영은 몇 개월간 멤버가 될 디바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만 도합 151년인 이들 디바 4인이 원더걸스와 트와이스 등 국내 대표 걸그룹을 배출해낸 K팝 최정상 프로듀서인 박진영을 만나 어떻게 화려하게 재탄생해 새로운 데뷔 무대를 선보일지, 인생 반란 수준이라는 이들의 깜짝 변신이 기대된다.

레전드 프로듀서와 역대급 디바들의 그룹 도전을 위해 〈프로듀사〉, 〈슈퍼맨이 돌아왔다〉, 〈뮤직뱅크〉 등 KBS 대표 프로그램을 다수 연출한 양현PD와 〈K팝스타〉, 〈LOUD〉의 최문경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제작진은 “인순이, 박미경, 신호범, 이은미는 물론 박진영도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인 만큼 이들이 모여 만들 하모니와 새 그룹에 대한 도전이 시청자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며 “그 어떤 그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갯백’의 차이를 보여 줄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 첫 방송 10월 27일  
매주 금요일 밤 10시 예정 **KBS9**



## 꾸밈없는 매력과 밝은 에너지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가수 청하가 10월 2일부터 〈볼륨을 높여요〉의 새로운 DJ로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다. 〈볼륨을 높여요〉는 1995년 방송을 시작한 KBS 라디오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으로 최강희, 유이나 등 스타 DJ를 배출해 왔다. 청하는 가수 헤이즈의 뒤를 이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공감 가는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들과 편안하고 친근하게 소통하고 있다.

제작진은 “청하의 꾸밈없는 매력과 밝은 에너지가 라디오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는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방송되며 KBS 쿨FM(수도권 주파수 FM 89.1MHz),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KBS 콩’과 ‘KBS 플러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 매일 저녁 8시~10시 **KBS CoolFM**

**I-N-T-E-R-V-I-E-W**

통통 튀는 발랄한 매력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는 DJ 청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Q <볼륨을 높여요>를 맡게 된 계기와 소감은?**

실 틈 없이 활동하다가 올해 처음 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새로운 회사를 찾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오귀나 PD님께서 함께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너무 감사했다.

〈볼륨을 높여요〉가 저보다 먼저 태어난 라디오라고 알고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라디오라 감히 제가 DJ 자리에 앉아도 될지, 민폐가 되진 않을지, 청취자분들에게 작게나마 일상의 안식처가 되어드릴 수 있을지 등 여러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사실 저는 올해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조금 헤매는 느낌이 강했는데, PD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이 긴 터널 사이의 미세한 빛 같아 보였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이끌렸고 불안함도 있지만 설레는 감정이 들었다.

제가 〈볼륨을 높여요〉을 시작하게 된 계기처럼 청취자분들에게도 ‘볼륨’이 사소한 기쁨과 작은 설렘을 선물해주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안한 감정들은 반으로 줄여주는 라디오가 되기를 바란다.

**Q 최강희, 유이나 등 스타 DJ의 산실인 <볼륨을 높여요>에서 어떤 DJ로 자리 매김하고 싶은지?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꼽는다면?**

차별점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 아마 라디오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선배님들보다 더 달달하고 능숙하게 이끌어 갈 자신은 없지만 가장 많은 위로와 공감, 축하의 박수를 보낸 소나무 같은 친구이자 DJ로 기억되고 싶다. 눈치 안 보고 한숨 쉬고 울고 싶을 때, 부끄러워서 표현 못 할 때, 마음껏 자랑하고 표출하고 싶을 때 등 살면서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려 한다.

**Q 실제 DJ석에서 방송을 진행해 본 느낌은? 그리고 <볼륨을 높여요>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데일리 DJ를 한 번쯤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상상으로만 그리던 그림 안에 제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이라는 동요가 생각난다. 제 컴백 쇼케이스보다 떨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첫 방송 걱정에 실수하는 악몽도 종종 꾸곤 했는데 악몽에서 본 제 모습보단 잘 해낸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첫 게스트로 라치카 언니들이 나와줘서 조금 편하기도 했고 특별했던 것 같다. 언니들 덕분에 첫 방송부터 저의 ‘짤’ 텐션이 나올 수 있었고 DJ 별명을 수월히 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성장하는 별디를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청취자분들을 〈볼륨을 높여요〉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볼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이프

김민철 재난미디어센터장

9월 20일 오후 6시쯤 부산 온천천 산책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여성이 기둥을 붙잡고 있다가 떠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사흘 뒤 8km 떨어진 해운대구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에는 여러 원인과 문제점이 얽혀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날 부산에는 종일 비가 별로 안 오다가 오후 5시쯤부터 한 시간 남짓 동안 3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가 단 20분 만에 0.55m에서 1.25m로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방재 대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괜찮겠지만, 취약한 곳에선 이 정도의 비에도 인명피해가 납니다. 올해 비 때문에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48명, 2020년의 역대 최장 장마 때보다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런 집중호우는 갈수록 잦아져 이젠 장마철뿐만 아니라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내릴 지경입니다.

# “시간당 30mm만 와도”... 난이도 최강의 “집중호우” 재난방송

일반적으로 ‘집중호우’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를 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차량 와이퍼를 가장 빠른 속도로 작동시켜도 비가 금방 앞 유리를 덮을 정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집중호우가 정확히 언제 어느 곳에 몇 mm가 쏟아질지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과학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최대한 정확히 비를 예측해서 발령하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도 시군구 단위의 지역에 대해 3시간에 60mm 이상 또는 12시간에 11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3시간에 90mm 이상, 12시간에 1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령합니다.

가령 경기도 고양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그로부터 3시간 안에 고양시 어딘가에 90mm 이상, 또는 12시간 안에 18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몇 시 몇 분에, 고양시의 어느 동네, 몇 mm의 비가 내릴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 합니다. 더욱이 그 비로 어느 곳이 침수나 산사태 등 피해가 날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걸 더 어렵습니다. 기상청과 산림청 등 재난 당국이 최대한 예측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

다. 그 재난 당국의 발표를 뒤쫓아가는 방송국 보도는 몇 박자 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는 게 재난 당국이나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의 책무니까요.

올해부터 KBS 재난미디어센터는 자체 연구 개발로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당 60mm의 비가 오면 자동 기사가 생성돼 신속히 보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기사에 곁들여야 하는 영상은 비가 내린 지역의 CCTV 라이브 영상을 활용합니다. 전국 방방곡곡만 4천여 개의 재난감시 CCTV 영상을 집결시킨 KBS의 독보적인 시스템 덕분입니다.

전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돼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비가 왔는지, 피해 여부와 정도는 어떤지 ‘깜깜이’였으나, 이젠 직전 1시간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린 곳을 실시간 파악하게 되면서 기동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노력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알기 쉬운 미디어 이슈

##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



유건식  
시청자서비스부/ 언론학 박사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린다. 이에 더해, OTT 업체가 구독 요금을 인상하면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를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어 이용자가 편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구매력이 낮아진다. 인플레이션의 정도는 물가상승률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물가상승률을 3.4%, 2024년은 2.4%로 전망하고 있는데, 2019년 0.4%, 2020년 0.5%와 비교해볼 때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기에 국내외 공급 및 수요의 불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했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미국 남북전쟁 때 녹색 지폐라 불리는 불환지폐(금이나 은 등 본위 화폐와 교환이 보증되지 않는 화폐)의 남발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은행의 대출 증가로 물가가 오르는 신용인플레이션, 환율이 올라 발생하는 환인플레이션, 수요의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인플레이션, 생산비(주로 임금)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코스트인플레이션 등의 유형이 생겼다. 최근 영화 가격 인상, 공연 가격 인상, 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콘텐츠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출현했다.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 역시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이 용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디즈니+가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 OTT에 광고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평균 25% 인상했다고 분석하면서 사용하였다. 디즈니는 미국에서 10월부터 월 구독료를 3달러 인상하여 13.99달러(2022년 12월 10.99달러)로 책정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미국과 영국에서 월 9.99달러의 베이직 요금을 없애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프리미엄 요금은 19.99달러에 달한다. 애플TV+, 피콕, 맥스, 파라마운트+도 구독료를 인상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최초 광고 요금제를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보다 가장 많이 구독료를 인상한 곳은 디즈니+이고, 그 다음은 넷플릭스이다. 그림을 보면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난다.

디즈니+는 국내에서도 11월부터 월 9,900원 단일 요금제에서 스탠다드(풀HD 화질, 동시 시청 2대)는 월 9,900원을 유지하고, 프리미엄(4K 화질, 동시 시청 4대)은 13,900원을 책정, 요금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를 통한 우회 구독을 하기도 한다.

스트림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구독자 확보의 어려움이다. 그동안 OTT 업체들은 빠른 성장을 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구독료를 유지하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정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구독료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고객층의 분류를 통한 수익성 확보이다. 물가가 상승한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저렴한 광고 모델로 유인하고, 경제력이 있는 고객은 프리미엄으로 유지하는 전략이다. 셋째, 광고 모델로의 유인이다. OTT 기업들은 광고 모델의 수익성을 더 높게 판단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AVOD(Advertising Video On Demand)의 성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글로벌 OTT 기업과 달리 국내 OTT 기업들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막대한 적자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이 쉽지 않고, 광고 모델 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콘텐츠의 싸움으로 모기업인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글로벌 OTT의 전략을 예의 주시하면서 OTT 기업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대응할 바란다.



고군분투 종매 코믹 멜로



KBS 월화드라마

# 혼례대첩

## 조선판 고군분투 종매 프로젝트

〈혼례대첩〉은 하루아침에 흠아비가 된 부마와 이중생활을 하는 과부가 힘을 합쳐 원녀와 광부(조선시대 노처녀와 노총각을 이르는 말)들을 혼인시키는 이야기다.

혼례 도중 세상을 떠난 공주 때문에 출사와 혼사 길이 모두 막힌 뒤 8년간 꾸준히 혼인무효 상소를 올리는 부마 심정우 역은 배우 로운이, 실제론 좌의정가의 조신한 과부 며느리지만 한양 최고의 종매쟁이 여주댁으로 활동하는 정순덕 역은 배우 조이현이 맡았다.

〈혼례대첩〉은 서로 일찍 배우자를 잃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사랑과 혼인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원녀와 광부의 혼인을 도우면서 상대방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린다. 정절과 정조의 시대인 조선을 배경으로 부마와 양반집 며느리로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사극의 세계관을 뒤집는 색다른 사랑 스토리와 감각적인 영상으로 울가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혼례대첩〉은 〈출사포〉, 〈저스티스〉의 황승기 PD가 연출을 〈대박부동산〉에서 탄탄한 필력을 선보인 하수진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제작진은 “좋은 배우, 스태프들과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 〈혼례대첩〉은 시청자들이 웃으며 볼 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드라마다. 두 사람이 만들어 나갈 ‘고군분투 종매 코믹 멜로’인 저희 작품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첫 방송 10월 30일  
매주 월~화요일 밤 9시 45분 **KBS**